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47



Contents

※ 2026.09.09.(수) 기준(대상 기간 : 2026.09.02.~2026.09.08.)

□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예산군, 충남 첫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2026.09.04)1
 - 구리시, 재생에너지·친환경 교통 탄소중립 전환(2026.09.07)1
 - 용인시의회 연구단체, 자원순환경제 정책 발굴(2026.09.07) 2
- AI 분야 3
 - 국가AI전략위 출범 1년…AI 대전환 도약 강조(2026.09.08) 3
 - 정부, 2035년 해상풍력 25GW…AI 핵심 전력 육성(2026.09.02) 3
 - 강원도, AI 데이터센터 유치…KT·신세계 투자 협의(2026.09.07) 4
 - 아산시, 1조원 AI 모빌리티 실증 콤플렉스 추진(2026.09.05) 5
 - 동작구, 민선 9기 첫 조직개편…AI 행정 강화(2026.09.03) 5
 - 대구 서구, AI 이상음원 감지로 공원 안전 강화(2026.09.07) 6
 - AI 시대 인구소멸 해법…제주 인구포럼 개최(2026.09.02) 6

□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7

■ 탄소중립 분야 7

- 한국부동산원, 건물 안전·탄소중립 사업 병행(2026.09.05)7
- 서부발전, 탄소중립 대국민 공모전 170점 접수(2026.09.03)8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9

■ 탄소중립 분야 9

- 현대차그룹-오만, 탄소중립 모빌리티 협력 협약(2026.09.04)9
- 인테그라디앤씨, 탄소중립 ISO 국제표준 인증(2026.09.03)9
- 동아시아 관광연맹, 탄소중립·AI관광 공동선언(2026.09.04)10

■ AI 분야 11

- 현대차, 새만금 9조원 AI 데이터센터 착공 채비(2026.09.03)11
- 청주대, AI 융합교육으로 학부생 KCI 논문 등재(2026.09.04)11
- 송실대-웰컴금융, 디지털금융AI학과 신설 협약(2026.09.04)12
- 미 법무부, AI 저작권 소송서 AI 기업 지지(2026.09.03)12
- 앤스로픽·오픈AI, IPO 앞두고 신용등급 설득전(2026.09.08)13

중앙정부·지자체 정책 동향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예산군, 충남 첫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2026.09.04) - 충남 예산군이 충청남도 내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는 탄소중립 행정에 나선다고 밝히며,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해 대상사업 선정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 사업별 감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방재정과 탄소중립 정책을 연계하는 적극행정을 추진 -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총 139개 사업, 1243억 원 규모가 대상사업으로 포함돼 기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중립사업을 제외한 2026년 본예산 9064억원의 13.7%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80개, 375억 원 규모로 감축효과를 정량 산정할 수 있는 40개 사업에 대해 약 1만4509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시 - 예산군은 이번 예산서 작성을 시작으로 예산 편성부터 사업 집행, 성과관리와 결산까지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사업별 추진실적과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점검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발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재정 연계형 탄소중립 행정의 정착을 도모
	□ 구리시, 재생에너지·친환경 교통 탄소중립 전환(2026.09.07) - 구리시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을 앞세워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신동화 구리시장이 지난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 지역 전환을 위한 기후 행동 공동 결의'에 참석해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의지를 확인하는 행보를 전개 - 공동 결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시민사회 활동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가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추진할 기후행동 목표와 실천 방향을 논의했으며, 구리시는 '구리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린 모빌리티 확산, 취약계층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병행하는 체계를 구성 - 구리시는 향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거점센터를 설치·확충해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실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구조를 확대해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등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도모
	□ 용인시의회 연구단체, 자원순환경제 정책 발굴(2026.09.07)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대표 신현녀)가 지난 4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과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에 적용할 정책방안을 모색했으며, 현장 방문에는 신현녀 대표와 이주연·박희정·이상욱·임준교·서정일·오수정 의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전개 - 연구단체는 행사장에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순환경제 전환과 관련한 기술과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자원순환 확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논의한 뒤 현장 방문 결과를 공유했으며, 신현녀 대표는 탄소중립이 환경 분야를 넘어 산업과 소비, 생활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용인특례시에 맞는 자원순환 정책 발굴 의지를 표명 - 이상욱 의원은 자원순환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시민 체감형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고 박희정 의원은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했으며, 연구단체는 앞으로도 정책 연구와 현장 활동을 이어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 국가AI전략위 출범 1년...AI 대전환 도약 강조(2026.09.08) -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제도적 기반 마련 단계를 넘어 데이터센터와 산업 전반에서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로 정책 무게중심의 이동을 추진 - 하 부위원장은 한국이 AI 기술과 컴퓨팅 인프라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 경쟁력을 갖춰 '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잠재력이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의 유기적 추진을 강조했고,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장은 국가 AI 컴퓨팅 자원 운영 현황 대시보드 구축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자원의 합리적 배분 원칙 마련을 발표 -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국산 AI 반도체·장비 실증 환경을 구축하고 해외 빅테크의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시 국산 장비 사용과 기술 공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조준희 산업AX·생태계 분과장은 부처별로 파편화된 GPU·신경망처리장치(NPU)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예산 절감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실증 사례의 해외 진출 발판 활용 계획을 제시
	□ 정부, 2035년 해상풍력 25GW...AI 핵심 전력 육성(2026.09.02) -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해상풍력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청정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필요한 핵심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해상풍력의 육성을 추진 -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법에 따라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정부	해상풍력 정책을 논의하는 범정부 기구로 한 총리가 위원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하며, 정부는 2035년까지 25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연간 4GW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입찰 추진을 계획 - 정부는 전용항만 확충과 특수선박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국내 기반이 부족한 15MW급 해상풍력 터빈 생태계 조성과 20MW급 터빈 개발을 준비하는 한편,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개별 추진하던 방식을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는 등 조선·철강·케이블 등 연관 산업의 성장 견인을 기대
지자체	□ 강원도, AI 데이터센터 유치...KT·신세계 투자 협의(2026.09.07) - 강원도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에 힘을 쏟는 가운데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주 데이터센터는 KT와 협의 중이고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에는 신세계 측의 투자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단순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넘어 지역 기업 협력과 인재 채용, 후속 투자까지 연결되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 - 강원도에서는 이미 동해에 GS 투자로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강릉에서는 SK와 변전소 용량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조건을 조율하며 건립을 협의 중이며, 우 지사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 빅테크 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에 유치의 무게중심을 두고 도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 지역 인재 채용 확대, 계열사·협력사의 후속 투자 유도를 구상 - 우 지사는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의 기업 유치와 관련해 복수 기업이 입주할 희망하면 추천 방식으로 대상 기업을 정하도록 한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가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아산시, 1조원 AI 모빌리티 실증 콤플렉스 추진(2026.09.05) - 충남 아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과 함께 추진하는 약 1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구축형 연구개발(R&D)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선정되며, 국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이후 마련된 사전점검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로 대규모 R&D 사업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 - 오세현 시장의 민선 9기 핵심공약인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AI·SDV) 기반 미래 모빌리티의 연구개발·실증·검증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 구축이 목표로, 내년 상반기 본 심사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9990억 원 규모의 44개 기술개발 과제가 추진되고 2031년까지 3개 연구동과 41만㎡ 규모의 실증 기반시설 조성을 계획 - 아산시는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반도체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집적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실증 거점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5903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6298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사업추진심사 최종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 집중을 추진
	□ 동작구, 민선 9기 첫 조직개편...AI 행정 강화(2026.09.03) - 서울 동작구가 주요 공약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일 밝히며, 정비사업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행정 강화에 초점을 맞춰 류삼영 구청장의 결재 1호인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에 따라 기존 도시교통국을 신속개발국으로 변경하는 등 3일부터 시행되는 조직 재편을 추진 - 신속개발국에는 정비사업신속추진단과 공간개발사업단을 신설해 정비사업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안전환경국은 안전교통국으로 바뀌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도로관리과를 편입하며, 행정자치국은 행정지원국으로 개편해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AI행정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진단'의 신설을 구성 - 복지국은 돌봄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해 통합돌봄과와 가족지원과를 신설하고 미래 교육국에는 문화정책과를 이관해 문화와 교육을 연계 추진하는 한편 환경과 편입으로 미래 환경정책 대응을 강화하며, 류삼영 구청장은 개발은 더 신속하게, 행정은 더 똑똑하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챙겨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대구 서구, AI 이상음원 감지로 공원 안전 강화(2026.09.07) - 대구 서구가 대구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원 내 비명이나 충돌음 등 이상 음원을 감지하는 'AI 이상 음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평리동 일대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생활권이 변화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과 생활공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CCTV 영상 관제에 AI 기반 소리 분석 기능을 더하는 사업을 추진 - 서구는 조달청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비 1억200만원 전액을 지원받아 이현공원 5곳과 가르뱅이공원 1곳에 총 24개의 마이크를 설치하고 지난달 20일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를 완료했으며, 최대 30m 거리의 소리를 수음하는 마이크로 이상 소리 발생 시 관제센터에 음성 알람을 전달하는 체계를 구성 - 이상 음원이 감지되면 관제요원이 해당 위치의 CCTV 영상을 즉시 확인하고 위급 상황이 확인되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현장 대응으로 연결하며, 서구는 시스템을 CCTV 관제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과 안전한 관제 체계의 강화를 도모
	□ AI 시대 인구소멸 해법...제주 인구포럼 개최(2026.09.02) - 제주도와 제주CBS가 4일 오후 2시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BeIN)공연장에서 '인구소멸 시대, AI가 여는 제주의 내일'을 주제로 2026 인구포럼 '제주 라이프(Life), 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이브(Live)'를 개최하며, 인공지능(AI) 시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주형 인구정책과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의 일자리·정주·돌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추진 - 포럼은 제주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3월 기준 66만 3000명으로 34개월 연속 감소하고 순유출이 2023년 1687명에서 2025년 4273명으로 3년 연속 확대되는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인구정책 관계자와 도민, '인구행복도시 도민 실천단' 등 300여 명이 참여하고 제주도 공식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참여 채널까지 구성 - 1부에서는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의 인간의 가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고 도민실천단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제주인구정책통합플랫폼과 제주 디지털관광증 '나우다' 등 우수 사례 공유회와 인구교육, 참여형 골든벨이 이어져 도민 공감대 형성과 청년 정주·생활인구 확대 방향의 모색을 기대

중앙·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 한국부동산원, 건물 안전·탄소중립 사업 병행(2026.09.05) -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현욱)이 건물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친환경 금융 지원과 건축물 안전관리 실무자 교육을 병행하며 건물 관련 공익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남은행·기술보증기금·농협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은행 등 협력 금융기관을 상대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베이스 설명회를 개최 -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은행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거나 에너지 사용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기관	줄인 건물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ESG(환경·사회·투명경영)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2023년 9월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신용보증기금, 2024년 9월 SC제일은행, 지난달 iM뱅크까지 잇따라 협약을 맺으며 은행권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온 성과를 확인 - 부동산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구와 서울, 대전 등 주요 권역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건축물관리제도 담당 공무원과 점검기관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정환 산업지원본부장은 설명회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의 지속 지원 의지를 표명
	□ 서부발전, 탄소중립 대국민 공모전 170점 접수(2026.09.03) - 한국서부발전이 탄소중립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서부발전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난해 78점의 두 배가 넘는 170점이 접수돼 심사를 거쳐 23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아이디어는 실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를 추진 - 올해는 기존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외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아이디어' 분야를 새롭게 마련해 홍보 콘텐츠 121점과 감축사업 아이디어 49점이 출품됐고 참가 대상을 초등부와 중·고등부, 일반·단체 등으로 나누며 총상금을 지난해 540만원에서 올해 1480만원으로 늘렸으며, 신설 분야 대상은 윤혁진 씨가 제안한 '동식물성 유지의 직접 연소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 달성'으로 확인 - 커피박을 이용한 장기탄소저장과 재·열·탄 순환 클러스터, 폐태양광·폐배터리 자원순환 플랫폼 등도 우수작에 올라 실제 사업 연결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며, 초등부 대상 '탄소 영수증, 꺼진 스위치에서 켜지는 미래'와 중·고등 및 일반·단체 부문 대상 '우리집 오프 발전소' 등 콘텐츠는 사내 방송과 SNS로 공개하고 초등부 수상 학교 대상 탄소중립 교육의 추진을 계획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차그룹-오만, 탄소중립 모빌리티 협력 협약(2026.09.04) -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만 정부의 '비전 2040' 달성과 국가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를 위해 3일(현지시간) 오만 살라라 술탄 카부스 문화복합단지에서 오만 교통통신정보기술부(MTCIT), 오만 에너지유통사 옴코(OOMCO)와 친환경 모빌리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히며, 오만 주요 공공기관과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협력을 추진 - 협력의 핵심은 오만 최초의 수소 시내버스 도입과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오만 국영운수사 무와살랏은 무스카트 대중교통 노선에 친환경차 전용 '그린 루트'를 지정해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를 투입하는 승객 운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옴코는 충전 인프라 자회사 이보(EVO)를 통해 할반 지역 주유소에서 현대케피코의 240kW급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운영을 계획 - 할반 지역 현장에서는 6개월간 충전 성능과 이용 수요를 평가해 향후 충전 인프라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며,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을 통해 대중교통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시작한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일반 상용차와 승용차 시장으로 확대하는 등 오만 모빌리티 시장 전반으로 지속가능한 솔루션 협력이 넓어질 것이라 전망
	☐ 인테그라디앤씨, 탄소중립 ISO 국제표준 인증(2026.09.03) - 건설산업 분야에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주)인테그라디앤씨(대표 고배원)가 국제표준 ISO 14068-1:2023에 기반한 조직 단위 탄소중립 계획 검증을 완료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적정' 검증의견을 획득했다고 3일 밝히며, 지난 2일 안산 본사에서 박상곤 인증원 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식을 개최 - ISO 14068-1은 2023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탄소중립 관리 및 달성에 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한 국제표준으로, 인테그라디엔씨는 모듈러 스마트 파사드 시스템 'IUES'와 통합 탄소 평가 플랫폼 'iCAP'을 통해 건물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검증은 고객의 탄소배출 감축을 넘어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로 추진 - 인테그라디엔씨는 자체 감축 노력을 국제기준에 맞게 계량화하고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는 체계를 정착시켜 2030년 감축 35%·제거 5%에서 2050년 감축 90%·제거 10%로 상쇄 의존도 0%를 달성하는 단계별 로드맵을 확정했으며, 고배원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이 이 정도의 검증을 통과해 ISO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 최초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완성을 표명
기타	□ 동아시아 관광연맹, 탄소중립·AI관광 공동선언(2026.09.04) - 강원특별자치도가 4일 필리핀 세부에서 폐막하는 동아시아지방정부 관광연맹(EATOF) 총회에서 탄소중립, AI스마트관광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회원국과 함께 채택하며, 3일 EATOF 및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 지사·성장회의를 열어 글로벌 문화·관광 교류와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 수립을 추진 - 공동선언문 중 첫 번째인 로컬 그린 데스티네이션 지정 및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청정 DMZ 생태·평화-안보관광 등 친환경 자연·문화 유산 보존 의지를 천명했으며, 선언문에는 고부가가치 로컬 콘텐츠 등 관광활성화와 지자체·대학·산업 협력 글로벌 관광모델 추진, 현장 밀착형 AI 기반 스마트 트래블 환경 조성, 안심 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구성 - 대표단을 이끈 신원철 도 경제부지사는 공동선언문 최종 합의가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과 현장 밀착형 AI 기반 스마트 여행 환경 조성 등 실질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으며, 앞서 2일에는 국제 심포지엄과 회원국 간 양자회담을 통한 공동 과제 발굴과 협력 사업 논의를 전개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차, 새만금 9조원 AI 데이터센터 착공 채비(2026.09.03) -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비공개로 만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지난 2월 투자협약에서 발표한 AI·로봇·수소를 아우르는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의 후속 절차가 구체화되며, 현대차그룹이 이달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건축심의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청은 연내 건축허가와 내년 3월 착공 목표의 추진을 확인 - 현대차그룹은 5조8000억원을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100메가와트(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태양광 발전 1조3000억원, 수전해 플랜트 1조원, 로봇 제조 클러스터 4000억원, AI 수소도시 4000억원을 순차 조성하며, 세부 사업을 합해 8조9000억원 규모로 태양광 발전과 수소 생산시설은 내년 말 착공을 계획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 전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4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관세청은 지난달 1산단 3·7·8공구 6.0km²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정부는 1산단을 로봇·AI, 3산단을 수소, 4산단을 RE100 전후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재편을 전망
대학교	☐ 청주대, AI 융합교육으로 학부생 KCI 논문 등재(2026.09.04) - 청주대학교 조경학과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AI 특성화 교육과정 'AI Triple Track'을 통해 학부생 연구팀의 논문 2편을 KCI 등재학술지 'GEODATA'에 게재하는 성과를 확보하며, 이론과 실습, 프로젝트를 하나로 묶어 AI 기술과 조경·도시계획 분야를 융합하는 통합 교육모델로 학내 학생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은 학술 성과를 달성 - 첫 번째 연구인 'AI 기반 머신러닝을 활용한 미래 충청북도 시·군 녹지면적 변화 분석'은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결합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충북 지역의 미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래 녹지면적 변화를 다각도로 예측했고, 이어진 'AI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미래 충청권 폭염 취약성 분석'은 일부 내륙 지역의 폭염 취약성 지속 전망과 산업용지·교통량 등 도시 공간구조의 영향을 도출 - 연구 과정에는 청주대학교 융복합교육센터의 학생주도형 교과목 지원이 중요한 발판이 됐으며 최건아 융복합교육센터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융복합 역량을 위한 교과목 지원 지속을 강조했고, 조경학과는 전공 교육과 학생 프로젝트, 학술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AI와 조경·도시계획을 아우르는 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 강화를 계획
	□ 숭실대-웰컴금융, 디지털금융AI학과 신설 협약(2026.09.04) - 숭실대학교가 웰컴금융그룹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계약학과인 '디지털금융AI학과'를 신설해 9월부터 운영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체 위탁 계약학과로 웰컴금융그룹 임직원이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AI 전문 역량을 쌓도록 설계돼 지난해부터 학과 신설을 논의해 교육부 신고 절차를 마치고 9월 1일 업무양해각서 체결을 완료 - 수업은 재직자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평일 오후 7시~9시 50분과 토요일에 진행하고 4개 학기 동안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뒤 종합시험과 졸업논문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1학기에는 AI 비즈니스 전략·금융 적용과 생성AI 실무 활용,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AI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교육하는 과정을 구성 - 이후 과정에서는 금융 특화 대규모언어모델(LLM) 구축·운영과 AI 거버넌스·규제 대응, AI 기반 금융 데이터 플랫폼, AI 에이전트 설계·운영 등을 다루고 숭실대 AI소프트웨어학부와 정보보호학과, 경영학부, AI전문대학원 AI융합보안학과 등의 교원이 참여하며, 장경남 학사부총장은 현업의 문제를 강의실로 가져와 풀어내며 금융과 AI를 함께 이해하는 인재 양성 의지를 표명
해외	□ 미 법무부, AI 저작권 소송서 AI 기업 지지(2026.09.03) - 미국 법무부가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거대언어모델 훈련에 언론 기사를 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뉴욕타임스의 주장 기각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등 인공지능 기업들에 대한 전격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 -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으로 미국이 적대국보다 AI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AI 산업 발전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규정했고, 막대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 의무화가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AI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거대 빅테크들의 시장 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제시 - 뉴욕타임스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수많은 창작자를 희생시키며 기업 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하는 소수의 거대 AI 기업 편만 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일론 머스크의 xAI 관련 소송에 이어 또다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AI 기업 방어에 나서면서 기술 패권과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의 지속을 전망 □ 앤스로픽 · 오픈AI, IPO 앞두고 신용등급 설득전(2026.09.08) -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과 오픈AI의 상장 주관사인 모간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양사의 기업공개(IPO) 직후 '투자적격(Investment-Grade)' 신용등급 취득을 위해 최근 수주 동안 주요 신용평가사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 등 물밑 설득전에 나섰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 주관사들은 양사가 상장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만큼 IPO 직후 투자적격 등급을 받아 총 11조 7천억 달러(약 1경 5천693조 원) 규모의 우량 회사채 시장에 진입해 AI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나, 과거 메타·넷플릭스·테슬라 등도 상장 후 상위 신용등급 획득까지 10년 이상 걸린 만큼 적자 기업의 상장 직후 취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 엔비디아가 오하이오주 오픈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공한 1천50억 달러 규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의 신용 지원은 오픈AI가 적정 신용등급을 얻는 즉시 종료되고 구글과 브로드컴도 앤스로픽에 수백억 달러의 신용 지원을 제공 중인 가운데, 신용평가사 분석가들은 오픈AI와 앤스로픽을 여전히 투기 등급이 매우 높은 적자 상태의 기업으로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흐름을 시사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